

포스코 DX (022100)

숫물보다 먼저 달아오른 수주

2026년 8월 27일

✓ 투자판단	매수 (신규)	✓ 목표주가	27,000 원 (신규)
✓ 상승여력	30.4%	✓ 현재주가 (8월 26일)	20,700 원

신한생각 수주 회복이 만드는 새로운 평가

포스코그룹의 설비투자를 IT·OT(운영기술)·EIC(전기/계장/제어) 수주로 전환하는 플렉스 사업자. ERP(전사적 자원관리)·MES(생산관리시스템) 등 그룹 IT 운영에서 안정적인 반복매출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력·계측 제어, 물류설비와 로봇 무인화를 수행. 제철소에서 축적한 공정 데이터와 자동화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스마트팩토리에서 Physical AI와 Agentic AI로 확대 중

2027년부터 이익 레버리지 효과 나타날 전망

2026년 상반기 매출은 16.8% 감소했지만 신규수주는 31.9% 증가. 자동화 수주가 53.5% 증가. 6월 말 수주잔고는 9,567억원으로 약 10~11개월치 매출을 확보. 자동화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시차 감안 시 2026년을 실적 저점 으로 2027년부터 본격적인 외형 성장과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전망. 포스코그룹의 16.7조원 투자계획은 추가 성장 기반. 신규 철강·이차전지 소재 공장 투자는 EIC와 자동화 구축, IT시스템 장기 도입, 장기 운영매출로 순차적으로 연결. Physical AI 제어모델과 AI 워크포스가 표준화되면 그룹 내부 구축 경험을 해외 생산거점과 외부 고객으로 확장 가능

2,000억원 이상의 순현금과 사실상 무차입 구조도 강점. AI 인력·인프라 투자와 M&A를 자체적으로 감당하면서 중간배당 도입 등 주주환원도 병행 가능. 대외매출 비중이 현재 3%에서 의미있게 상승한다면 캡티브 SI(시스템 통합) 기업에서 산업 AI 플랫폼 사업자로 재평가될 전망

Valuation & Risk: 수주가 실적으로 전환되는 구간

목표주가 27,000원과 투자조건 '매수'로 커버리지 개시. 12개월 선행 EPS 에 목표 PER 69.2배를 적용. 2027~2028년 영업이익은 각각 735억원 (+81.7% YoY), 1,161억원(+58.1%) 전망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4	1,473.3	109.0	88.0	33.0	17.9	5.5	22.6	0.7
2025	1,075.2	60.4	52.1	83.9	9.5	7.7	55.2	0.4
2026F	999.3	40.4	40.7	77.3	7.1	5.4	53.4	0.6
2027F	1,193.0	73.5	67.0	47.0	11.1	5.0	33.1	0.6
2028F	1,448.7	116.1	102.4	30.7	15.4	4.5	21.9	0.9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철강금융]

박광래 연구위원

✉ krpark@shinhan.com

Revision

실적추정치	신규
Valuation	신규

시가총액	3,147.1 십억원
발행주식수(유동비율)	152.0 백만주(34.4%)
52주 최고가/최저가	42,850 원/17,250 원
일평균 거래액 (60 일)	14,989 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3.6%

주요주주 (%)

포스코홀딩스 외 2 인	65.4
국민연금공단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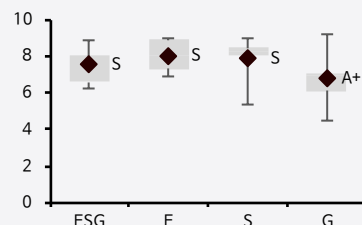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7.8 (36.2)	(11.9)	(28.6)	
상대	5.9 (24.6)	(58.9)	(54.8)	

주가



ESG 컨센서스

(점수 및 등급)



I. 투자 의견 및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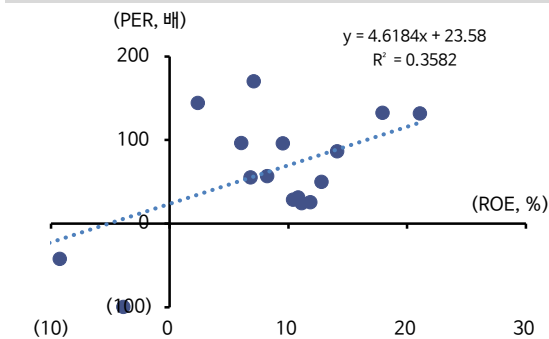
목표주가 27,000원, 투자 의견 '매수'로 커버리지 개시

산업 AI와 로봇 자동화로
여는 새로운 성장 사이클

목표주가 27,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선행 EPS에 목표 PER(주가수익비율) 69.2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2027~28년 10% 이상의 ROE, 6% 이상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9%대 ROE와 5%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2025년의 PER을 목표 배수로 활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투자 포인트는 포스코그룹의 철강·이차전지소재 설비투자를 수주로 전환하는 IT·OT·EIC 융합 사업자라는 점이다. 제철소 스마트팩토리 경험과 AI·디지털트윈·로봇 자동화 역량을 기반으로 단순 시스템 구축에서 고부가 산업 AI·무인화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룹 발주 회복 시 매출 증가와 고정비 레버리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2027~28년 영업이익은 각각 735억원(+81.7% YoY), 1,161억원(+58.1%)을 전망한다. AI 워크포스와 해외 생산거점 프로젝트는 외부시장 진출의 기반이다. 2,000억원 이상의 순현금에서 더 강화될 주주환원도 주목해야 한다.

포스코DX ROE, PER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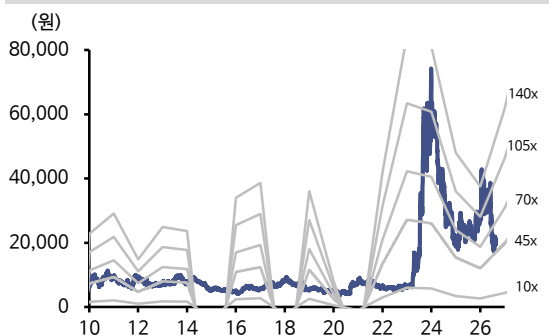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 목표주가 산정

	상세	비고
EPS (원)	383	12개월 선행 EPS
목표 PER (배)	69.2	수익성 회복 구간에서의 PER
적정주가 (원)	26,204	
목표주가 (원)	2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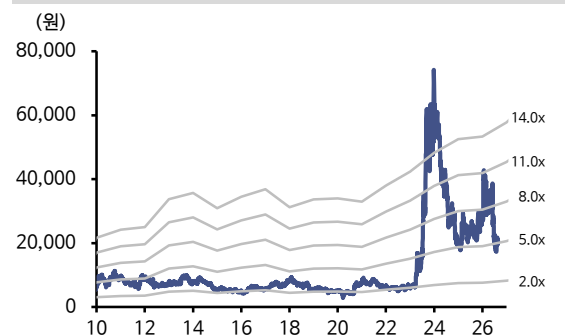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 PER 밴드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 PBR 밴드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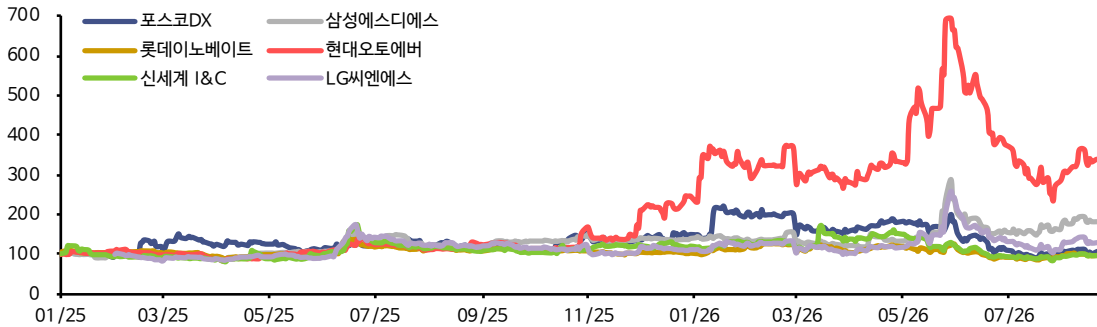
국내 SI업체 밸류에이션

(십억원, 배, %)	시가총액	PER			PBR			ROE			EV/EBITDA		
		25	26F	27F	25	26F	27F	25	26F	27F	25	26F	27F
포스코DX	3,147	83.8	75.4	56.3	7.66	5.30	4.96	9.5	7.2	9.1	55.3	51.4	38.6
삼성에스디에스	17,720	17.4	25.2	20.0	1.33	1.69	1.59	7.9	7.0	8.1	5.0	8.4	7.1
현대오토에버	12,588	49.5	57.6	47.4	4.89	6.25	5.65	10.3	11.3	12.5	19.6	24.6	21.6
LG씨엔에스	7,073	13.5	15.0	13.4	2.03	2.17	1.97	17.3	15.3	15.3	7.4	8.3	7.5
롯데이노베이트	280	30.0	7.7	7.3	0.70	0.62	0.58	2.4	8.3	8.2	3.8	2.7	2.6
신세계 I&C	188	7.6	-	-	0.50	-	-	6.7	-	-	1.8	-	-
평균		23.6	26.4	22.0	1.89	2.68	2.45	8.9	10.5	11.0	7.5	11.0	9.7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 주: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국내 SI 업체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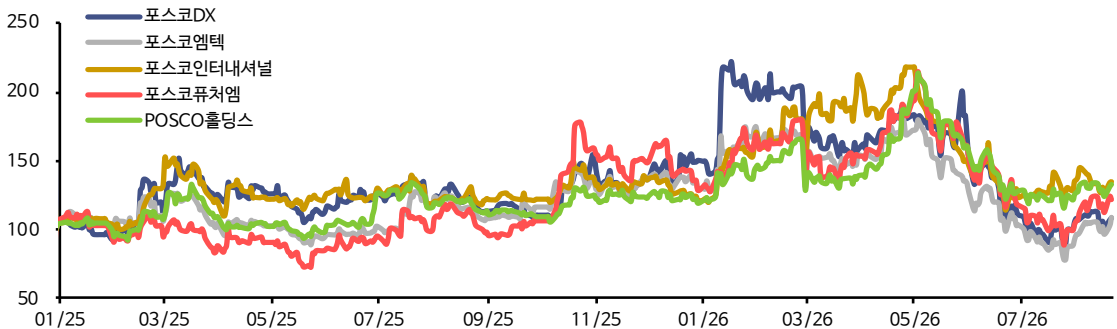
(2025.01.02=100)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포스코그룹 상장사 상대주가 추이

(2025.01.02=100)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II. 회사 개요

제철소의 센서부터 ERP까지 연결하는 IT·OT 풀스택 사업자

회사 연혁과 지배구조

스마트팩토리를 넘어
Physical AI와
Agentic AI로의 진화

포스코DX는 포스코그룹의 ERP·MES·클라우드·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IT서비스 업체다. 동시에 제철소와 이차전지소재 공장의 전력·계측·제어설비를 구축하고 크레인·물류설비·산업용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는 자동화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공장 센서와 제어장치부터 생산관리시스템, 전사 경영시스템까지 연결하는 IT·OT 통합 역량이 회사의 핵심 정체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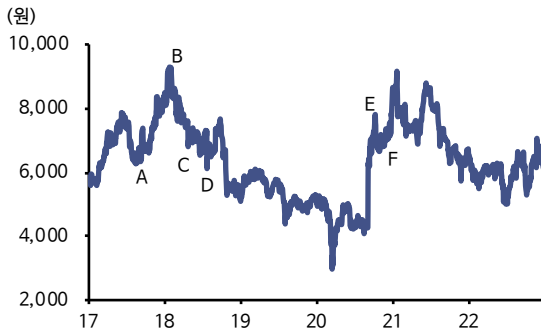
회사의 중장기 방향도 기존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넘어선다. 사무영역에서는 Agentic AI를 활용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제조현장에서는 AI Operator가 기존 대형설비와 로봇을 인자·판단·제어하는 Physical AI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DX의 사업구조는 1) 그룹 IT아웃소싱과 정비 중심의 반복매출, 2) 그룹 설비투자와 연동되는 EIC·자동화 프로젝트, 3) Physical AI와 Agentic AI로 구성된 신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스코DX 연혁

연도	내용
1989.11	포스데이타(주) 창립
1990.04	기술연구소 설립
2000.11	코스닥 상장 및 주식매매 개시
2006.01	POSDATA-CHINA 중국 법인 설립
2010.01	(주)포스코과 합병 및 본점 소재지 변경(분당→포항)
2010.01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포스코ICT)로 사명 변경
2011.01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 신설사업 열연설비 EIC 공급 계약
2013.07	세계 최초 'BC-PC 통합 시스템' 개발 및 포스코 포항제철소 4선재 공장 적용
2013.01	'포스코ICT 베트남' 법인 설립
2013.12	주주우선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금 75억원 증가 (신주 15,000,000주 발행)
2017.03	포스코 포항, 광양 제철소 내 Cloud Data Center 구축 사업 수주
2021.01	포스코리튬솔루션 광석리튬 상용화 공장 공통설비 구축사업 수주
2022.05	포스코그룹 로봇기술협의회 발족
2022.12	로봇제어 전문기업 다임리서치社와 ACS(무인운송로봇 제어시스템)공동개발 협약 체결
2023.03	포스코디엑스(포스코DX) 사명 변경
2023.06	'2023 포스코그룹 로봇컨퍼런스' 개최
2023.08	포스코퓨처엠 포항 양극재공장 2단계 EIC설비 구축사업 수주
2023.09	5G 특화망 사업을 위한 5G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 승인
2023.01	북미지역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캐나다 사무소(퀘벡) 설립
2024.01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2025.04	영상인식 시 기반 로드킬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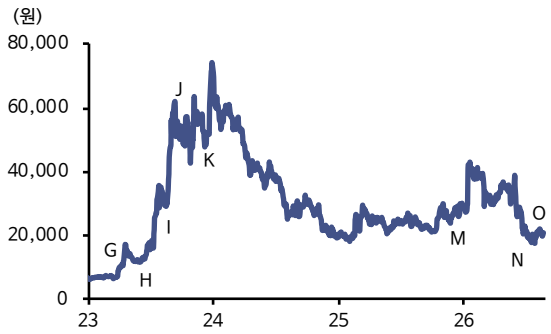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 주가 추이 (2017년~2022년)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 주가 추이 (2023년~2026년)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쳤던 이벤트들

구분	시점	주요 이벤트와 내용
A	2017.09.13	포스코그룹이 스마트팩토리·스마트빌딩·스마트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룹 제조업 스마트화의 핵심 수행사로 포스코ICT가 부각
B	2018.02.26	하도급법 별점이 공공입찰 제한 요청 기준을 넘어 공공사업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부각
C	2018.04.25	1분기 영업이익이 90억원(-45.4% YoY)으로 시장 컨센서스(139억원)에 크게 미달
D	2018.07.25	베트남 호찌민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이 히타치에 667억원을 배상하도록 판정
E	2020.09.08	정부의 디지털뉴딜 수혜주로 부각.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그룹 외부 스마트팩토리·물류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확산
F	2021.01.04	포스코 IT 아웃소싱 계약 수주(총 2,093억원)
G	2023.03.28	포스코ICT에서 포스코DX로 사명 변경. AI·디지털트윈·산업용 로봇 기업으로 정체성 재정립.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 공장 투자에 따른 EIC·스마트팩토리 수혜 기대가 그룹주 밸리와 결합
H	2023.07.11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검토. 2분기 영업이익 343억원(+137.4% YoY)
I	2023.08.23	이사회가 코스피 이전 상장 공식 추진. 포스코퓨처엠 포함 양극재 2단계 공장의 EIC 구축을 1,160억원에 수주. 생산능력은 연간 2.95만톤
J	2023.10.05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이 승인됐지만, 이미 알려진 호재가 확정되면서 차익 실현 집중
K	2023.12.21	2024년 1월 2일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가 마지막으로 반영. 상장 후 4거래일간 외국인 753억원 순매도
L	2025.12.23	포스코DX가 미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페르소나AI에 2백만달러를 투자하고 로봇 공동개발 및 산업현장 적용에 협력하기로 결정
M	2026.01.15	포스코그룹이 일본 야스카와전기와 구동모터코어 생산 자동화에 협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짐
N	2026.07.29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를 양축으로 하는 'AI 네이티브 컴퍼니' 전환 발표
O	2026.08.07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DX 주식 2,339만주를 4,817억원에 처분하고 지분율을 65.38%에서 50.0%로 낮추기로 결정

자료: 언론 종합,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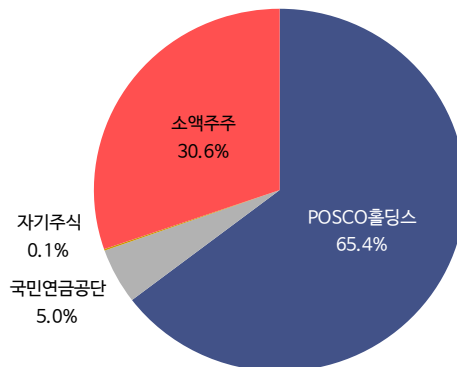
포스테이타에서 포스코DX까지

1989년 11월 포스테이타로 설립됐다. 2000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뒤 2010년 1월 엔지니어링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던 포스콘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포스코ICT로 변경했다. 합병을 통해 포스테이타의 IT 역량과 포스콘의 전기·계측·제어, 즉 EIC 역량이 한 회사에 결합됐다. 현재의 IT·OT 융합 사업모델이 형성된 출발점이다. 2023년 3월에는 사명을 포스코DX로 바꿨다. 이는 기존 ICT 시스템 구축에서 공장과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미였다. 2024년 1월에는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

시스템 구축에서 전사 DX 기업으로

포스코홀딩스는 회사 설립 이후 계속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포스코홀딩스 지분율은 65.38%, 국민연금금은 5.01%다. 소액주주 보유 비중은 30.63%다. 자기주식은 21.2만주로 발행주식의 0.14%의 비중을 차지한다. 포스코홀딩스는 2026년 9월 보유 지분 15.38%에 해당하는 2,339만주를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3년 만기의 주가수익스왑(PRS)을 체결할 예정으로, 거래 완료 시 지분율은 50%로 낮아진다. 해외에는 POSCO DX China, PT.POSCO DX Indonesia, POSCO DX Vietnam 등 3개 연결 종속회사를 두고 있다. 캐나다 퀘벡에도 사무소를 두고 이차전지소재 공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DX의 주요 주주 지분율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스코홀딩스의 포스코DX 지분 처분결정

항목	내용
처분주식수(천주) / 처분금액 (백만원)	23,385 / 481,749
처분 후 소유주식수(천주) / 지분비율 (%)	76,017 / 50
처분에정일자 / 이사회결의일	2026-09-07 / 2026-08-0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DX 주식을 처분하고, 이와 관련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할 예정 - 기초자산: (주)포스코DX 보통주식 23,385,917주 - 기준가격: 주당 20,600원 (이사회 전일 종가 기준) - 계약기간: 3년 - 정산방법: 정산 시점에 수익지급자가 실제 매각한 금액(비용 차감)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상회 정산

자료: POSCO홀딩스, 신한투자증권

제철소 현장 데이터와
조업 경험이 만든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

IT와 OT를 모두 포괄하는 사업구조

포스코DX의 핵심 차별화 포인트는 공장 설비에서 경영시스템까지 L0~L4 전 계층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SI 업체가 주로 L3~L4의 IT시스템을 담당하고, 로봇 제조사가 L0~L1의 하드웨어를 공급한다면 포스코DX는 양쪽을 연결한다. MES에서 받은 생산계획을 AI가 해석하고, 카메라와 센서로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PLC에 제어명령을 내려 크레인이나 설비를 움직이는 폐쇄형 제어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역량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장기간 축적한 연속공정 데이터와 조업 노하우에서 나왔다. 포스코 시절부터 계산하면 45년 이상 제철소 자동화 사업을 수행해 왔다. 철강 생산공정과 양극재 공정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있어 외부 경쟁사가 포스코그룹 내부시장에 진입하기도 쉽지 않다. 포스코DX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L0~L4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IT·OT 풀스택 기업이다.

팩토리 자동화 계층(Automation Pyramid)에서의 역할

계층	주요 영역	포스코DX의 역할
L0	센서·카메라·LiDAR·현장 디바이스	설비 데이터 수집, 형상·위치·이상 감지
L1	PLC·DCS·전력제어	설비·로봇에 실제 제어명령 전달
L2	공정제어·모니터링	공정 최적화, 품질제어, 설비 무인운전
L3	MES	생산·품질·물류정보 통합관리
L4	ERP·SCM·경영정보	인사·재무·구매·공급망 등 전사 시스템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수주잔고 68%를 책임지는 핵심 성장축

자동화 사업: EIC에서 로봇·무인화까지

자동화 사업은 전기계측제어 기술을 활용해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공장의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설비, 자동제어기기, PLC-DCS, 공정제어, MES 연계, 크레인·물류설비 무인화, 산업용 로봇과 공항 BHS 등을 포함한다.

2026년 상반기 별도 기준 자동화 매출은 2,44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1%, 영업이익은 79억원으로 전체 이익의 57%를 차지했다. 6월 말 자동화 수주잔고는 6,513억원으로 전체 수주잔고 9,567억원의 68.1%다. 현재 매출보다 수주잔고가 자동화 사업에 더 집중돼 있어 향후 매출 믹스 역시 자동화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물류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24년간 BHS를 구축·운영해 왔다. 2021년에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BHS를 수주했고, 약 1,000억원 규모의 한진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는 2024년 2월 가동을 시작했다. 철강 중심 자동화 역량을 공항 택배도로창고로 확장한 대표 사례다.

포스코DX는 로봇 본체를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 야스카와 등 외부 업체에서 로봇 하드웨어로 조달하고, 현장에 맞는 제어로직, 공정 레이아웃, MES 연계, 안전 시스템과 시운전을 통합해 제공한다. 로봇 제조사라기보다 산업현장용 로봇 SI·엔지니어링 사업자에 가깝다.

포스코DX 자동화 사업 영역

사업 영역	설명
철강 EIC	제철소 전력·계측·제어설비 구축과 정비, MES 연계, 품질·공정 최적화
이차전지소재	리튬·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 공장의 전력·제어·생산시스템 구축
물류 자동화	크레인, AGV·AMR, 창고, 소터, 인천공항 BHS 및 그룹 통합물류
로봇 자동화	Band Cutter, Dross 제거, 스케일 브레이커 등 고위험 공정의 로봇화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 자동화 사업 주요 진행 프로젝트

프로젝트	계약금액	2026년 6월 말 진행률
포스코퓨처엠 포항 양극재 2단계 통합제어시스템	1,160억원	96.0%
캐나다 퀘벡 Ultium CAM 양극재 1단계 스마트팩토리	769억원	60.6%
포스코 Coil·Slab 크레인 무인화 4단계	525억원	93.5%
서부내륙고속도로 ITS 구축	591억원	77.5%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5단계 EIC	709억원	계약 진행 중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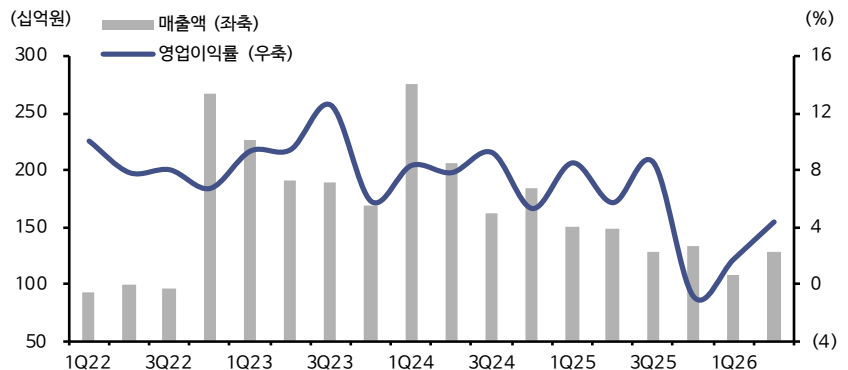
안정적인 반복 매출과
즉각적인 현금흐름 창출력에
주목

IT서비스 사업: 그룹의 디지털 백본(Digital Backbone)

IT서비스 사업은 포스코그룹의 ERP·MES·경영정보·클라우드·네트워크·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그룹 내 IT아웃소싱 뿐만 아니라 데이터·AI 플랫폼, 스마트홈, 건설현장 안전관리, ITS 등도 포함한다. 2026년 상반기 별도 기준 IT서비스 매출은 2,342억원으로 매출의 49%, 영업이익은 58억원으로 이익의 43%를 차지했다. 6월 말 IT 수주잔고는 3,054억원으로 전체 잔고의 31.9%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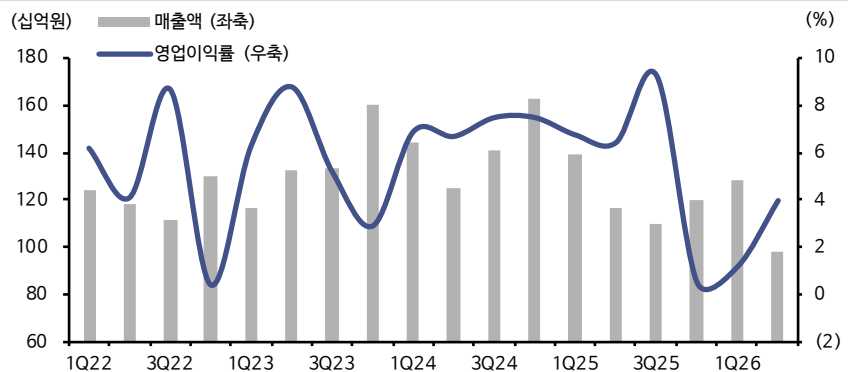
대표적인 반복매출은 연간 IT 아웃소싱 SLA(Service Level Agreement) 계약이다. 2026년 포스코 IT아웃소싱 계약금액은 1,880억원으로, 단일 계약만으로도 2025년 연결 매출의 17.5%에 해당한다. 자동화 프로젝트가 수주 후 매출로 전환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IT 프로젝트와 SLA 계약은 수주 직후 월별로 매출이 발생한다. 2023년 9월 이음 5G 주파수를 할당받고 기간통신사업자로 승인됐다. 이를 통해 공장 내부의 로봇, 이동장비, 설비와 제어시스템을 전용 5G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포스코DX의 자동화 사업 부문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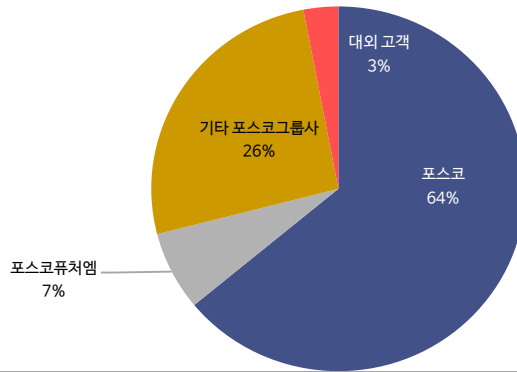
포스코DX의 IT서비스 사업 부문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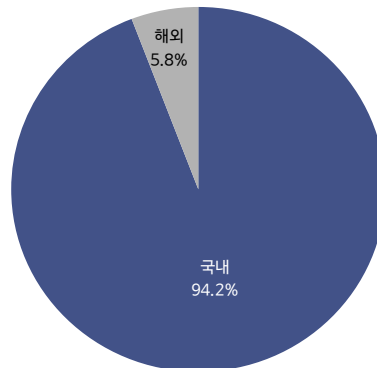
Captive 중심의 고객·지역 구조, 프로젝트형 매출·비용 구조

포스코DX의 고객군별 매출 비중 (2026년 2분기 기준)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의 지역별 매출 비중 (2026년 상반기 기준)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의 매출 유형별 비중

매출 유형	2026년 상반기 매출	비중 (%)
엔지니어링 시스템	1,907억원	40
IT 개발·운영 용역	1,623억원	34
정비·유지보수	836억원	18
서버·SW 등 상품	276억원	6
네트워크·통신	98억원	2
합계	4,741억원	100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III. 투자 포인트

수주는 이미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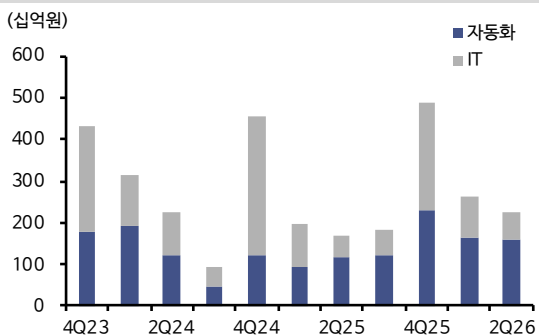
자동화 수주 급증과 탄탄한 수주잔고

2026년 상반기 연결 신규수주는 4,97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9% 증가했다. 특히 자동화 신규수주가 2,112억원에서 3,242억원으로 53.5% 늘며 전체 수주 회복을 주도했다. IT 신규수주도 1,530억원에서 1,630억원으로 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결 매출은 5,696억원에서 4,741억원으로 16.8% 감소했다. 자동화 매출도 2,998억원에서 2,357억원으로 21.4% 줄었다. 수주는 늘었는데 매출이 감소하는 엇갈림은 자동화 프로젝트의 수주·매출 인식 시차에서 발생한다. 자동화 사업은 설계, 장비조달, 설치, 제어 연계와 시운전을 거쳐야 하므로 수주 후 본격적인 매출 인식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수주잔고는 2025년 3분기 7,000억원에서 4분기 9,300억원, 2026년 1분기 9,6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분기에도 9,567억원을 유지했다. 통상 연말·연초에 수주한 연간 IT 운영계약이 매출로 전환되면서 수주잔고가 감소하지만, 올해는 자동화 신규수주가 잔고 감소를 상쇄했다. 현재 수주잔고는 2025년 연간 매출의 89.0%, 2026년 상반기 매출을 단순 연환산한 9,482억원의 1.01배에 해당한다. 자동화 수주잔고는 6,513억원으로 전체의 68.1%, IT는 3,054억원으로 31.9%다. 현재 매출 구성은 자동화 51%, IT 49%지만 수주잔고는 자동화에 더 집중돼 있다. 2027년에는 자동화 매출 비중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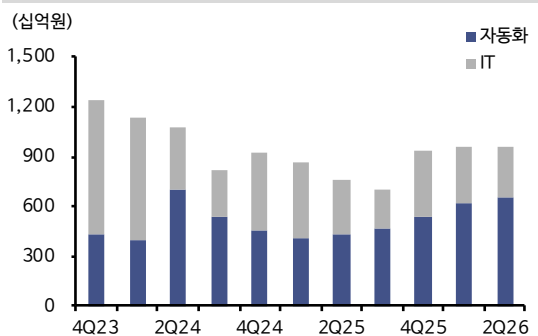
IT에서는 안정적인 반복매출이 하방을 지지한다. 2026년 포스코 IT 아웃소싱 SLA 계약금액은 1,880억원으로 2025년 1,730억원보다 8.7% 증가했다. 이 계약 하나가 2025년 연결 매출의 17.5%에 해당한다. 2분기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데이터 플랫폼·통합 경영정보시스템을 150억원, 포스코 LLM 기반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포털을 40억원에 수주했다. 포스코퓨처엠 PI 프로젝트 수주도 기대해볼만하다. PI 프로젝트는 ERP·인사·구매 등 전사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수주될 경우 현재 IT 수주잔고의 15% 이상을 한 번에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DX 신규 수주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 수주잔고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스코그룹의 16.7조원 투자

포스코그룹 Capex 확대의 최대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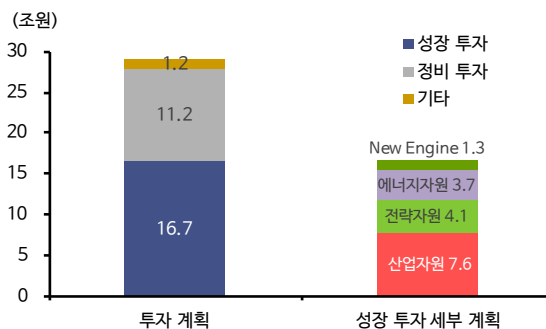
포스코그룹은 2026~2028년 미래성장 투자계획으로 총 16.7조원을 제시했다. 산업자원·철강 7.6조원, 리튬·양극재·음극재·희토류 등 전략자원 4.1조원, LNG·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자원 3.7조원, Physical AI를 포함한 New Engine 1.3조원으로 구성된다.

투자 분야별로 포스코DX가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은 명확하다. 신규 공장이 건설되면 전력과 제어설비뿐 아니라 MES, ERP, 네트워크, 보안, 물류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후 공장이 가동되면 정비와 IT아웃소싱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신규 공장 투자 한 건이 자동화 수주와 IT 구축 수주, 장기 운영매출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그룹 전체 투자금액이 포스코DX 수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포스코DX가 참여할 수 있는 IT·OT 비중과 실제 수주점유율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 Base 기준 누적 잠재수주 6,263억원은 현재 수주잔고 9,567억원의 65.5%에 해당한다. 3년에 균등 배분하면 연평균 약 2,088억원으로, 2025년 매출의 19.4%다. 이는 확정 수주 전망이 아니라 그룹 투자액 가운데 포스코DX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는 민감도다. 연간 IT 운영계약과 기존 제철소 개보수, 안전투자 등은 계산에서 제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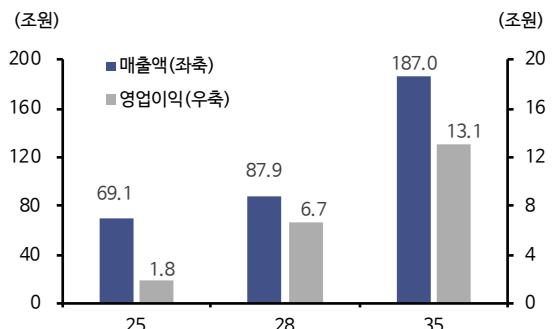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규 공정의 초기 설계 참여다. HyREX와 같은 새로운 제철 공정은 기존 고로와 계측·제어방식이 달라 초기 제어 표준을 구축한 업체가 후속 상용설비와 해외 프로젝트까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2028년부터 HyREX 관련 EIC 수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포스코그룹 자본 배분 계획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스코그룹 합산 매출, 영업이익 목표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산업현장에서 더디게
확산되고 있는
Physical AI 도입

Physical AI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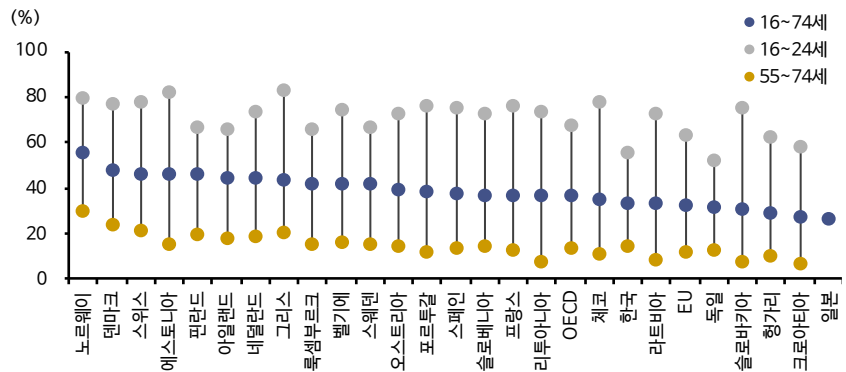
기업의 AI 도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물리설비를 자율 제어하는 Physical AI는 아직 초기 단계다. OECD 조사에서 AI를 사용하는 기업 비중은 2023년 8.7%에서 2024년 14.2%, 2025년 20.2%로 높아졌다. Eurostat에 따르면 2025년 EU 기업 중 주변환경을 관찰해 기계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AI를 사용한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일반 AI 도입보다 산업현장 Physical AI 도입이 훨씬 초기라는 의미다.

EU 기업 규모별 AI 도입 기업 현황

(단위: %)	2024년	2025년
EU 전체 기업	1.0	1.4
소기업	0.7	1.0
중기업	0.8	1.2
대기업	7.2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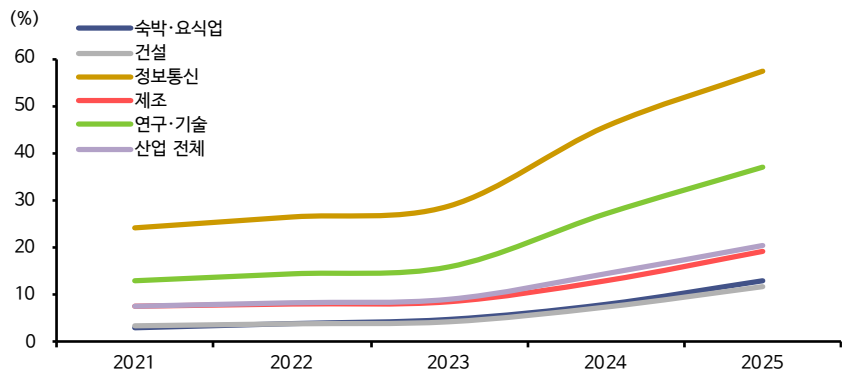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신한투자증권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생성형 AI를 활용한 개인의 비율



자료: OECD, 신한투자증권

OECD 국가 내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



자료: OECD, 신한투자증권

제철소 도메인 지식과
IT·OT 융합이 만들
Physical AI 핵심 경쟁력

포스코DX의 차별점은 로봇 본체가 아니라 제철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어·통합 기술과 데이터다. 국내 자동화 시장은 연평균 약 7% 성장해 2029년 16조원에 이를 전망이지만, 로봇 하드웨어 자체는 야스카와·현대로보틱스·중국 업체 등 다수 기업이 공급할 수 있다. 반면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제철소에서 로봇과 기존 설비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MES 데이터에 따라 자동 제어하려면 공정지식과 IT·OT 통합 역량이 필요하다.

향후 수익모델의 핵심은 표준화다. 현재는 제철소 공정마다 별도의 설계·개발이 필요해 인력투입형 프로젝트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크레인, Band Cutter, Dross 제거, 리클라이머 등의 제어모델이 표준화되면 유사 공정과 해외 공장에 반복 적용할 수 있다. 그룹 로드맵은 2027년 실증, 2028년 개발, 2029년 이후 제품화·외부 판매다. 이 단계부터 포스코DX의 기업가치 산정 기준이 단순 SI 인건비 배수에서 산업용 AI 플랫폼 배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긴다.

포스코DX의 Physical AI 사례

사례	정량 지표 및 현황
선재 코일 무인크레인	최대 8톤급 코일, 형상 인식률 99.5%, 위치오차 ±20mm
Coil·Slab 크레인 무인화 4단계	계약금액 525억원, 2026년 6월 진행률 93.5%
대형 AGV	최대 65톤급 소재·설비 이송
코일 벨트 체결 휴머노이드	20~40톤급 코일 작업 공동개발
GTSU 항만하역기	20m 안팎의 대형 그랩 위치·흔들림 제어, 현장 실증 단계
리클라이머	원료야드 자율운전 기술개발
Dross 제거·Band Cutter	고온·비산·반발 위험 작업의 로봇 대체
4족보행 로봇	고열·CO ₂ 등 고위험 구역 자율점검 PoC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Physical AI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포스코DX

협력사	협력 내용
야스카와	2026년 1월 MOU,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모터코어 생산공정 자동화
Persona AI	2026년 2월 MOU, 제철소 코일 벨트 체결용 휴머노이드 공동개발
다임리서치	이기종 AGV·AMR을 통합 제어하는 ACS 공동개발
딥엑스	산업용 엣지 AI 솔루션 상용화 기술 공동개발
NVIDIA	Omniverse·Isaac Sim 기반 디지털 트윈 및 가상 시운전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Agentic AI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중장기 신규 매출까지 기대

Physical 뿐만 아니라 Agentic AI에도 진심

포스코DX는 Agentee 플랫폼을 통해 회계·세무, 인사·노무, 안전·준법, 엔지니어링, 구매·조달, 경영관리 등 10개 업무 도메인에 113종의 AI 직원을 적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는 16개 AI Agent로 구성된 ACE Platform을 투입한다. 회사 제시 성과는 결산업무 시간 80% 단축, 반복업무 50% 이상 자동화다. 재무 회계 Agent는 중복 전표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업무를 자동화한다. 경영분석 Agent는 BI 데이터를 온톨로지로 구성한 뒤 자연어 질의만으로 수주·매출·영업이익 분석과 대시보드를 생성한다.

Agentic AI의 투자 가치는 비용절감과 신규 매출이라는 두 방향에서 발생한다. 첫째, 내부 생산성이다. 포스코DX 국내 직원은 2,109명이며 2026년 상반기 급여총액은 913억원이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약 1,825억원이다. AI Agent가 줄여주는 반복업무가 추가 프로젝트 수행과 외부 컨설팅 인력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능력 증가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둘째, 기존 SI 사업의 수주경쟁력 강화다. 포스코퓨처엠 PI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과거처럼 ERP 기능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 AI가 처리할 부분, 기존 시스템이 처리할 부분, 사람이 수행할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Agentee는 독립적인 라이선스 매출보다 ERP·PI·데이터 플랫폼 수주에 결합되는 핵심 기술로 먼저 매출화될 가능성이 높다.

상용화 순서는 포스코DX 내부 적용, 포스코그룹사 확산, 기존 RPA 대외 고객, 일반 외부 고객 순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의미한 독립 매출은 없지만, 내부 비용으로 분류되던 AI 개발인력이 그룹사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시점부터 공통비가 매출원가로 전환되고 수익성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포스코DX의 Agentic AI 성장 전략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 Agentic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 가정	연간 인건비 환산가치 (억원)	2025년 영업이익(604억원) 대비
5%	91	15.1%
10%	183	30.2%
15%	274	45.3%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3%의 대외매출, 가장 큰 약점이자 가장 큰 리레이팅 옵션

캡티브 한계를 넘어 추가
재평가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대외매출 확대

2026년 상반기 기준 고객사별 매출 비중은 포스코 64%, 포스코퓨처엠 7%, 기타 그룹사 27%, 대외 고객 3%다. 해외 매출 비중도 5.8%에 불과하다. 높은 Captive 비중은 수주 안정성을 높이지만 그룹 설비투자가 포스코DX 성장의 상단을 결정한다는 한계를 만든다. 따라서 대외매출 비중이 3%에서 10%로 상승하는 것은 단순한 매출 증가보다 기업의 성장 상한과 밸류에이션 체계를 바꾸는 이벤트다.

인천공항 BHS, 한진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등 대외사업 관련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다. 과거 대형 외부 물류사업은 프로젝트 리스크와 예상보다 부진한 물류센터 수요로 인해 축소했다. 향후 대외사업은 하드웨어를 일괄 조달하는 대형 터키 물류센터보다, 내부에서 검증한 크레인·로봇·AI Operator·Agent를 표준화해 판매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인천공항 T1 BHS 리뉴얼도 대외수주 촉매다. 발주 시점과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기간 운영 레퍼런스를 보유한 포스코DX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이후 700억원 이상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직접 참여가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 점도 대형 공공 IT사업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포스코DX 대외매출 시나리오 분석

대외매출 비중	대외매출 (억원)	현재 대비 매출 증분 (억원)	현재 대비 영업이익 증분 (억원)
3%	323	-	-
5%	538	215	17
10%	1,075	752	60
15%	1,613	1,290	103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 주: 대외매출 영업이익률 8% 가정

포스코DX 대외사업 레퍼런스

프로젝트	상세 내용
인천공항 BHS(Baggage Handling System)	개항 이후 24년간 구축·운영
한진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약 1,000억원 규모, 2024년 가동
서부내륙고속도로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계약금액 591억원
캐나다 Ultium CAM 스마트팩토리	계약금액 약 769억원
금융권 RPA(Robot Process Automation)	기존 대외 고객 다수 확보
스마트홀·통합안전·도로 ITS	건설 및 공공 인프라 레퍼런스 보유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AI 투자와 주주환원을 동시에 책임질 순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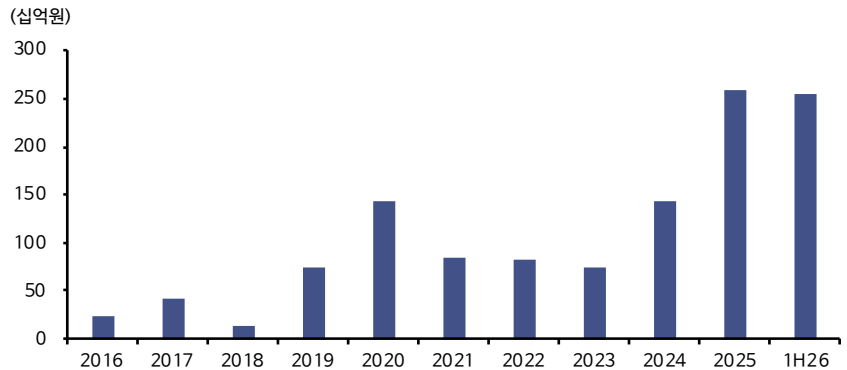
순현금 안전마진과 무차입 재무구조의 힘

2026년 6월 말 포스코DX의 연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483억원이다. 차입금은 약 1억원에 불과하며 자본 5,671억원, 부채 2,558억원, 부채비율 45.1%로 사실상 무차입·순현금 구조다. 보유 현금은 2026년 전체 투자계획 350억원의 7.1배다. 기존 사업을 위한 서버·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AI 전문인력, GPU 인프라, 로봇 스타트업 지분투자과 M&A를 외부 차입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주주환원도 강화되고 있다. 주당 결산배당금은 2023년 100원에서 2024년과 2025년 125원으로 상승했다. 2025년 배당총액은 190억원으로 연결 순이익 526억원 대비 배당성향은 약 36.1%다. 2026년에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주당 6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고 배당총액은 91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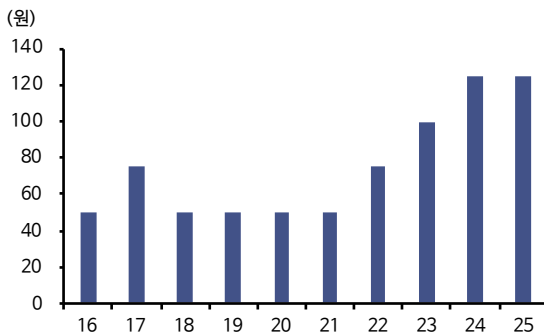
강한 재무구조는 AI 신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기간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Physical AI와 Agentic AI의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R&D와 인력비용이 증가해도 유상증자나 대규모 차입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성장주 투자에서 중요한 하방 방어 요인이다.

포스코DX 순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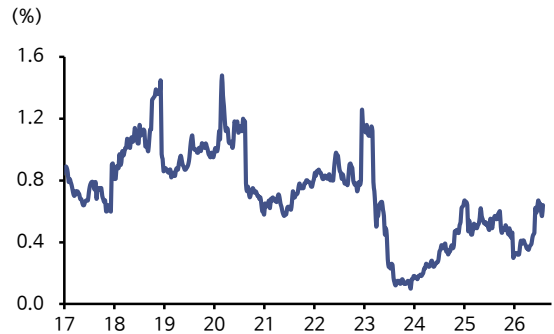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 DPS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스코DX 배당수익률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IV. 실적 추이 및 전망

실적은 2026년에 저점, 2027년부터 회복

선제 투자와
수주 시차를 지나

2026년 매출액 9,993억원(-7.1% YoY), 영업이익 404억원(-33.1%)을 전망한다. 상반기 매출 감소와 저마진 장비·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출, Agentic AI 및 Physical AI 관련 선형 인력 투입이 동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2027년 영업이익 81.7%
반등 전망

2027년에는 9,567억원의 수주잔고가 매출로 전환되면서 매출액 1.19조원(+19.4%), 영업이익 735억원(+81.7%)을 달성하겠다. 영업이익률은 2.2%p 개선된 6.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8년은 매출액 1.45조원(+21.4%), 영업이익 1,161억원(+58.1%) 달성을 예상한다.

포스코DX 연간 영업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840.5	866.9	950.6	927.1	969.8	964.2	869.3	1,152.7	1,485.9	1,473.3	1,075.2	999.3	1,193.0	1,448.7
영업이익	14.0	52.2	56.1	42.1	48.1	26.1	(19.5)	64.7	110.6	109.0	60.4	40.4	73.5	116.1
순이익	(51.5)	36.9	41.9	(34.2)	39.2	8.7	(14.2)	45.6	91.9	88.0	52.1	40.7	67.0	102.4
OPM (%)	1.7	6.0	5.9	4.5	5.0	2.7	(2.2)	5.6	7.4	7.4	5.6	4.0	6.2	8.0
NPM (%)	(6.7)	4.3	4.4	(3.7)	4.1	0.9	(1.6)	4.0	6.2	6.0	4.9	4.1	5.7	7.1
ROE (%)	(14.3)	10.4	10.8	(9.3)	11.1	2.4	(3.9)	11.8	21.1	17.9	9.5	7.1	11.1	15.4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2026년 상반기 매출은 4,741억원(-16.8%), 영업이익은 135억원(-66.2%)을 기록했다. 반면 신규수주는 4,975억원으로 31.9% 증가해 상반기 수주/매출 비율이 1.05배로 회복됐다. 자동차 부문은 상반기 수주 3,242억원, 매출 2,357억원으로 수주/매출 비율이 1.38배를 기록했다. IT 부문은 수주 1,630억원, 매출 2,263억원으로 0.72배였다. 자동차 부문에서 수주가 먼저 회복되고, IT 부문은 기존 수주잔고가 매출로 소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6년 하반기에는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3Q +2.2%, 4Q +5.5%)이다. 2026년 하반기 매출 회복을 예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6년 6월 말 수주잔고가 9,567억원으로 전년 2분기 약 7,600억원보다 25.9% 증가했다. 매출 대비 수주잔고는 약 0.89배로, 약 10~11개월치 매출에 해당한다. 둘째, 자동차 사업의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분기 자동차 수주는 1,6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3%, 2분기는 1,605억원으로 약 38% 증가했다. 다만 자동차 프로젝트는 수주 후 매출 인식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므로 본격적인 기여 시점은 2027년으로 판단한다.

자동화의 외형 확장과 IT의 수익성 회복 예상

셋째, IT 프로젝트는 수주 다음 달부터 기간별로 매출이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2분기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데이터 플랫폼·통합 경영정보시스템 150억원, 포스코 차세대 EP 프로젝트 40억원 등을 수주했다. 이는 3분기 IT 매출 반등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2026년 포스코 IT 아웃소싱 SLA 계약은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연간 예상 매출의 약 17.5%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반복 매출이다.

자동화 부문은 2026년 상반기 매출이 2,3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했지만, 수주는 3,242억원으로 53.5% 증가했다. 6월 말 자동화 수주잔고는 6,513억원으로 전체 수주잔고의 68.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자동화 매출은 2026년 5,607억원에서 2027년 6,750억원, 2028년 8,000억원으로 각각 20.4%, 18.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자동화 영업이익률은 매출 회복과 인력 가동률 상승으로 2026년 3.7%에서 2027년 5.7%, 2028년 7.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IT 부문은 자동화보다 매출 전환 속도가 빠르고 하드웨어 비중이 낮아 정상적인 프로젝트 믹스에서는 수익성이 더 높다. IT 매출은 2026년 4,843억원에서 2027년 5,450억원, 2028년 6,150억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3.6%에서 7.4%, 8.2%로 회복될 것으로 추정한다.

포스코DX 분기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배, %)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1Q27F	2Q27F	3Q27F	4Q27F
수주액	203.8	173.5	186.0	496.1	267.1	230.4	260.1	302.7	288.1	300.9	316.5	343.5
수주/매출 배율	0.69	0.64	0.76	1.90	1.11	0.99	1.04	1.10	1.06	1.05	1.04	1.04
기말 수주잔고	856.3	760.0	700.0	930.0	960.0	960.0	970.0	997.5	1,013.8	1,028.2	1,040.3	1,053.5
매출액	296.8	272.9	244.7	260.8	241.5	232.6	250.1	275.2	271.8	286.6	304.3	330.3
자동화	150.9	148.9	129.0	133.0	107.4	128.3	134.8	145.0	141.9	149.2	158.1	169.9
IT	139.0	116.5	109.8	119.6	128.2	98.1	108.8	123.2	122.9	129.9	138.2	152.0
기타-해외	6.9	7.5	5.9	8.2	5.9	6.2	6.5	7.0	7.0	7.5	8.0	8.5
영업이익	22.9	17.1	21.7	(1.2)	3.7	9.9	11.7	15.2	14.5	16.6	19.4	23.0
자동화	12.8	8.5	11.0	(1.1)	1.9	5.6	6.7	8.5	8.0	9.1	10.4	12.2
IT	9.4	7.5	10.2	0.6	1.5	3.9	4.8	6.4	6.3	7.2	8.6	10.4
기타-해외	0.7	1.1	0.5	(0.7)	0.3	0.4	0.3	0.3	0.3	0.3	0.3	0.3
%YoY 증가율												
매출액	(32.6)	(22.7)	(23.2)	(27.9)	(18.6)	(14.8)	2.2	5.5	12.5	23.2	21.7	20.0
자동화	(45.1)	(27.5)	(20.6)	(27.8)	(28.8)	(13.8)	4.5	9.0	32.1	16.3	17.3	17.1
IT	(3.8)	(7.0)	(22.3)	(26.7)	(7.8)	(15.8)	(0.9)	3.0	(4.1)	32.4	27.0	23.4
기타	(67.0)	(66.6)	(60.2)	(42.2)	(14.5)	(17.3)	10.2	(14.6)	18.6	21.0	23.1	21.4
영업이익	(35.0)	(29.8)	(17.6)	적전	(83.8)	(42.1)	(46.0)	흑전	292.5	67.8	65.3	51.1
자동화	(43.9)	(46.9)	(26.4)	적전	(85.2)	(34.1)	(39.4)	흑전	319.7	62.4	56.2	43.2
IT	(5.7)	(10.7)	(3.8)	(95.1)	(84.0)	(48.0)	(53.0)	966.7	317.9	85.0	80.1	63.0
기타	(72.5)	흑전	(39.6)	적전	(57.1)	(63.6)	(48.0)	흑전	(6.7)	(25.0)	23.1	21.4
지배주주순이익	21.5	14.2	17.4	(1.1)	4.0	11.7	11.1	13.9	13.6	15.3	17.5	20.5
영업이익률 (%)	7.7	6.3	8.9	(0.5)	1.5	4.3	4.7	5.5	5.3	5.8	6.4	6.9
순이익률 (%)	7.3	5.2	7.1	(0.4)	1.6	5.0	4.4	5.1	5.0	5.3	5.8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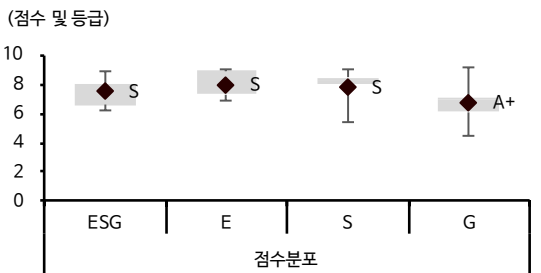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ESG Insight

Analyst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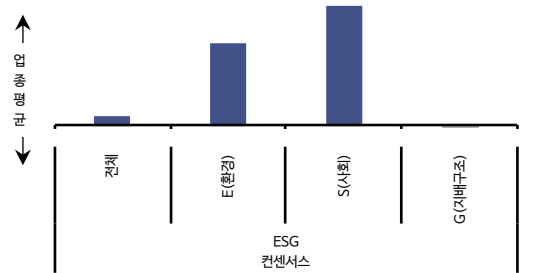
- ◆ 2040년 탈탄소 달성 기후 비전 설정, 2030년까지 온실가스 42% 감축 중간 목표 수립
- ◆ 기술·특허 지원, 직업훈련 컨소시엄 등 공급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행
- ◆ 정기배당 실시, 2023년 결산 배당부터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원칙을 정관에 반영하여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신한 ESG 컨센서스 분포



자료: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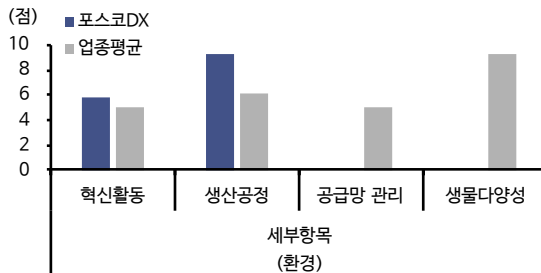
ESG 컨센서스 업종 대비 점수 차



자료: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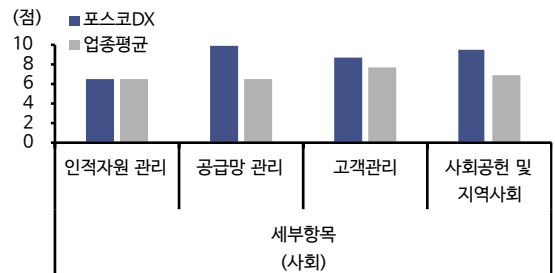
Key Chart

E(환경) 세부항목별 점수 및 업종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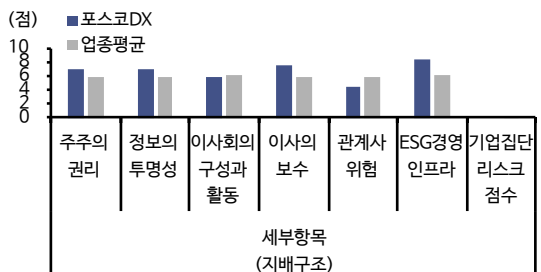
자료: Sustainvest, 신한투자증권 / 주: 세부항목은 Sustainvest 기준

S(사회) 세부항목별 점수 및 업종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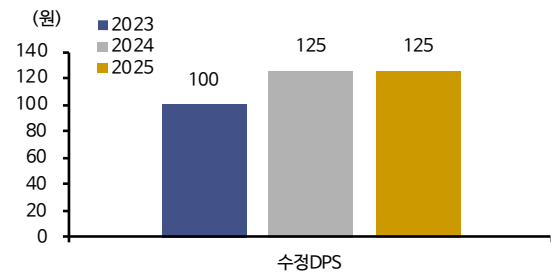
자료: Sustainvest, 신한투자증권 / 주: 세부항목은 Sustainvest 기준

G(지배구조) 세부항목별 점수 및 업종평균



자료: Sustainvest, 신한투자증권 / 주: 세부항목은 Sustainvest 기준

수정 DPS



자료: 에프앤가이드, 신한투자증권

재무상태표

12월 결산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자산총계	892.5	834.4	885.0	994.1	1,144.3
유동자산	676.7	612.0	656.4	770.3	923.4
현금및현금성자산	129.2	246.9	249.3	281.7	334.8
매출채권	293.6	221.8	160.6	192.8	232.3
재고자산	18.3	13.1	13.7	16.4	19.8
비유동자산	215.8	222.4	228.6	223.8	220.9
유형자산	120.1	114.9	112.7	109.1	106.3
무형자산	12.6	11.8	12.2	9.5	7.4
투자자산	20.0	22.7	20.9	22.6	24.5
기타금융투자자산	0.0	0.0	0.0	0.0	0.0
부채총계	366.6	261.8	302.5	362.8	436.8
유동부채	355.0	251.7	290.8	349.1	420.5
단기차입금	0.0	0.0	0.0	0.0	0.0
매입채무	129.4	78.6	95.9	115.1	138.7
유동성장기부채	0.0	0.0	0.0	0.0	0.0
비유동부채	11.5	10.2	11.6	13.7	16.3
사채	0.0	0.0	0.0	0.0	0.0
장기차입금(경기금융부채 포함)	1.8	1.2	1.0	1.0	1.0
기타금융투자부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525.9	572.6	582.5	631.3	707.4
자본금	76.0	76.0	76.0	76.0	76.0
자본잉여금	224.4	224.4	224.4	224.4	224.4
기타자본	(1.0)	(1.0)	(1.0)	(1.0)	(1.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3	0.7	(1.0)	(1.0)	(1.0)
이익잉여금	222.4	269.5	280.8	328.8	403.9
지배주주지분	523.2	569.6	579.2	627.3	702.3
비지배주주지분	2.7	3.0	3.3	4.0	5.1
*충차입금	3.8	2.3	2.1	2.3	2.6
*순차입금(순현금)	(144.1)	(259.2)	(256.3)	(290.3)	(345.4)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7.8	146.0	44.1	62.2	84.3
당기순이익	88.6	52.6	41.1	67.7	103.5
유형자산상각비	9.9	10.8	10.6	10.3	10.0
무형자산상각비	3.1	3.4	3.2	2.7	2.1
외화환산손실(이익)	(1.5)	0.4	(0.1)	0.0	0.0
자산처분손실(이익)	(0.0)	(0.0)	(0.0)	(0.0)	(0.0)
지분법, 종속, 관계기업손실(이익)	0.0	0.2	(0.3)	(0.2)	(0.2)
운전자본변동	(78.2)	54.4	(13.8)	(19.0)	(31.8)
(법인세납부)	(4.4)	(17.0)	(16.3)	(12.8)	(19.5)
기타	80.3	41.2	19.7	13.5	20.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6)	(6.2)	(14.1)	(10.8)	(12.2)
유형자산증가(CAPEX)	(12.7)	(5.5)	(7.9)	(6.7)	(7.3)
유형자산감소	0.1	0.0	0.0	0.0	0.0
무형자산감소(증가)	(1.6)	(3.1)	(3.8)	0.0	0.0
투자자산감소(증가)	2.5	(2.8)	(0.3)	(1.6)	(2.0)
기타	(0.9)	5.2	(2.1)	(2.5)	(2.9)
FCF	69.8	141.9	31.4	45.2	74.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7.2)	(21.4)	(28.6)	(18.8)	(18.7)
차입금증가(감소)	(1.9)	(2.3)	0.2	0.2	0.3
자기주식처분(취득)	0.0	0.0	0.0	0.0	0.0
배당금	(15.3)	(19.1)	(28.2)	(19.0)	(19.0)
기타	0.0	0.0	(0.6)	0.0	0.0
기타현금흐름	0.0	0.0	0.2	(0.3)	(0.3)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증가	0.0	0.0	0.0	0.0	0.0
환율변동효과	1.0	(0.6)	0.7	0.0	0.0
현금증가(감소)	69.0	117.8	2.4	32.5	53.1
기초현금	60.2	129.2	246.9	249.3	281.8
기말현금	129.2	246.9	249.3	281.8	334.9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괄손익계산서

12월 결산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473.3	1,075.2	999.3	1,193.0	1,448.7
증감률 (%)	(0.8)	(27.0)	(7.1)	19.4	21.4
매출원가	1,285.8	946.1	875.9	1,022.5	1,215.4
매출총이익	187.5	129.1	123.5	170.5	233.2
매출총이익률 (%)	12.7	12.0	12.4	14.3	16.1
판매관리비	78.5	68.7	83.0	97.0	117.1
영업이익	109.0	60.4	40.4	73.5	116.1
증감률 (%)	(1.4)	(44.6)	(33.1)	81.7	58.1
영업이익률 (%)	7.4	5.6	4.0	6.2	8.0
영업외손익	9.5	8.5	7.4	7.0	6.9
금융손익	5.3	5.8	8.3	8.2	8.2
기타영업외손익	4.3	2.8	(0.5)	(0.8)	(0.8)
중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0.0)	(0.2)	(0.4)	(0.4)	(0.4)
세전계속사업이익	118.5	68.8	47.8	80.4	123.0
법인세비용	29.9	16.2	6.7	12.8	19.5
계속사업이익	88.6	52.6	41.1	67.7	103.5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88.6	52.6	41.1	67.7	103.5
증감률 (%)	(3.8)	(40.6)	(21.8)	64.5	52.9
순이익률 (%)	6.0	4.9	4.1	5.7	7.1
(지배주주)당기순이익	88.0	52.1	40.7	67.0	102.4
(비지배주주)당기순이익	0.6	0.5	0.4	0.7	1.1
총포괄이익	79.7	65.7	48.1	67.7	103.5
(지배주주)총포괄이익	78.9	65.4	47.9	67.7	103.6
(비지배주주)총포괄이익	0.8	0.4	0.2	(0.0)	(0.1)
EBITDA	122.0	74.5	54.2	86.5	128.2
증감률 (%)	1.0	(38.9)	(27.3)	59.7	48.2
EBITDA 이익률 (%)	8.3	6.9	5.4	7.3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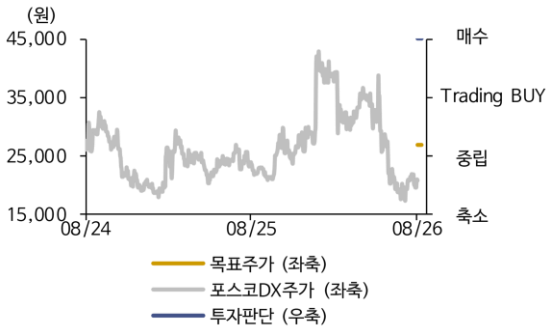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	2024	2025	2026F	2027F	2028F
EPS (당기순이익, 원)	583	346	271	445	681
EPS (지배순이익, 원)	579	343	268	441	674
BPS (자본총계, 원)	3,459	3,766	3,832	4,152	4,653
BPS (지배지분, 원)	3,441	3,746	3,810	4,126	4,620
DPS (원)	125	125	125	125	180
PER (당기순이익, 배)	32.7	83.1	76.5	46.5	30.4
PER (지배순이익, 배)	33.0	83.9	77.3	47.0	30.7
PBR (자본총계, 배)	5.5	7.6	5.4	5.0	4.4
PBR (지배지분, 배)	5.5	7.7	5.4	5.0	4.5
EV/EBITDA (배)	22.6	55.2	53.4	33.1	21.9
배당성향 (%)	21.6	36.4	46.6	28.3	26.7
배당수익률 (%)	0.7	0.4	0.6	0.6	0.9
수익성					
EBITDA 이익률 (%)	8.3	6.9	5.4	7.3	8.9
영업이익률 (%)	7.4	5.6	4.0	6.2	8.0
순이익률 (%)	6.0	4.9	4.1	5.7	7.1
ROA (%)	9.9	6.1	4.8	7.2	9.7
ROE (지배순이익, %)	17.9	9.5	7.1	11.1	15.4
ROIC (%)	32.4	14.2	14.0	24.9	36.5
안정성					
부채비율 (%)	69.7	45.7	51.9	57.5	61.7
순차입금비율 (%)	(27.4)	(45.3)	(44.0)	(46.0)	(48.8)
현금비율 (%)	36.4	98.1	85.7	80.7	79.6
이자보상배율 (배)	488.8	562.9	595.1	1,017.1	1,440.6
활동성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7.9	7.2	9.1	9.5	9.5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4.6	5.3	4.9	4.6	4.6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78.8	87.5	69.8	54.1	53.6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포스코DX(022100)



일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원)	과리율 (%)	
			평균	최고/최저
2023년 08월 30일	커버리지제외		-	-
2026년 08월 27일	매수	27,000	-	-

주: 목표주가 과리율 산출 기간은 6개월 기준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광래)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섹터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신한투자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6년 08월 24일 기준)

매수 (매수)	94.36%	Trading BUY (중립)	2.26%	중립 (중립)	3.38%	축소 (매도)	0.00%
---------	--------	------------------	-------	---------	-------	---------	-------